

[ 북 스 ]

어린이 책꽂이

▲가장 오래된 약속, 종교=인류의 역사와 함께 맥을 같이 해온 종교, 그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방과후 비밀수업=학교에 사는 쥐가 미술교사인 주인공에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구석구석 놀라운 인체=인조인간과 몸이 뒤바뀐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모험을 통해 인체의 여러 장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과학 학습서.

▲상대적으로 특별한 아이슈타인=평범한 소녀 마리아가 시간여행을 통해 아이슈타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눈다.

▲한족족=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비극을 지켜본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가 쓴 자전소설이다.

진귀한 사진·그림 함께 보는 '상징'의 모든것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초상화 속 담비는 '정숙'의 상징이다. 담비는 털이 더럽히면 죽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담비털은 순결과 연결돼 있다.

상징 이야기 잭 트레시더 지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검은 고양이도 불길함의 상징이고, 흰색은 순수한 진리의 상징이다.

동식물·자연현상 인체부위 등

1,000여개 상징을 종류별로 분석 등 친절한 해설을 곁들인 책이다. 저자는 '상징이란 음악이나 미술처럼 이성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정신적 속살을 비춰 보여주는 창'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상징물들을 다룬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진실성, 자기인식)의 상징이 깨지면 불운이 생긴다는 미신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쌍둥이 '영혼'을 담고 있다는 원시적 생각에서 연유한다.

검은 고양이, 블랙 데이(주가가 폭락한 날), 블랙 마켓(암시장) 등에서 알 수 있듯 검은색은 부정적인 상징으로 인식된다.

〈도출·2만3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거침 없고 통통 튀는 남미 여행기

1만 시간 동안의 남미 박민우 지음

패션잡지 '유행통신'에 15개월 동안 연재했던 여행 칼럼니스트 박민우씨의 글이 단행본으로 묶여 나왔다. '열정에 중독된 427일 동안의 남미 방랑기 시즌 ONE'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1만 시간 동안의 남미'는 저자가 지난 2005년부터 14개월 동안 남미를 여행하고 쓴 여행기다.



최근의 도시화 과정은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 도시화는 본래 산업화에 따른 고용 증대가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몰려오고 도시는 점점 커져간다.

빈민 양산하는 현대 도시들 분석

슬럼, 지구를 뒤덮다 데이비스 지음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역사학 교수 마이클 데이비스는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통해 전지구적 현상인 슬럼(街)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다룬다. 저자는 슬럼의 구체적 현황을 폭로하고, 그 안의 계층 구조와 역학관계를 분석한다.



〈출판·1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로버트 치달디니 '설득의 심리학'

어린 학생시절에 내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선택의 폭이 좁았다. 시골에서 자라 더 그러했다.

세계 문학 또는 한국 문학, 위인전기 등이 전부였으니까. 이런 책들을 읽고 나면 동경의 세계가 펼쳐졌고, 책 속에서 만난 훌륭한 위인들은 판 세상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 '양서 선택법'이라는 강의를 들어보고 어떤 책을 읽어야 나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까 고민이라도 해야 할 정도다.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흔히들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한다. 서가에 꽂혀진 책은 책을 항상 곁에서 보고 지내지만, 출근한 뒤 업무에 열중하고 시간이 흘러 퇴근하며, 귀가 후에는 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책을 접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

바쁜 시간을 쪼개 최근에 읽었던 로버트 치달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저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그리고 효과가 뛰어난 법칙이 있다'고 역설한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라



희귀성의 법칙 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어떻게 설득이 가능인지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항상 더 큰 것, 훌륭한 것, 더 좋은 것만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중에서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라는 내용의 구절이 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이므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에 얽혀 있다는 것이라는 얘기다.

즉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을 법정 스님의 책을 통해 얻은 뒤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항상 생각하고 행동이 다르며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생각이 골몰해 지던 차에 '설득의 심리학'을 읽게 됐다.

일상 속의 우리들은 직장에서, 이웃 간에,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저자가 말한 법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당하기도 한다.

남을 설득하고 설득당하기보다는 설득의 심리학을 심분 적용해 서로 이해하며, 일상생활의 소중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려 노력한다.

벌써 하계휴가가 시작이 됐다. 평소 읽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책, 한두 권 정도를 배낭에 넣고 휴가를 떠나 한가로운 분위기에 책 읽는 부모의 뒷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조영추

〈광주시립무등도서관장〉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차(7월~8월) 시험일: 10월28일.

7·9급 공무원 대강. 「특보」세무직 을하반기 1,992명 대증원, 합격의 절호기회. 7월 18일 주야반공.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8월 1일. 전담대우 부구청 건너편 ☎234-0234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www.modishgallery.co.kr. 30% 오페라 침실세트.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환정) 2,900,000원 → 1,400,000원.